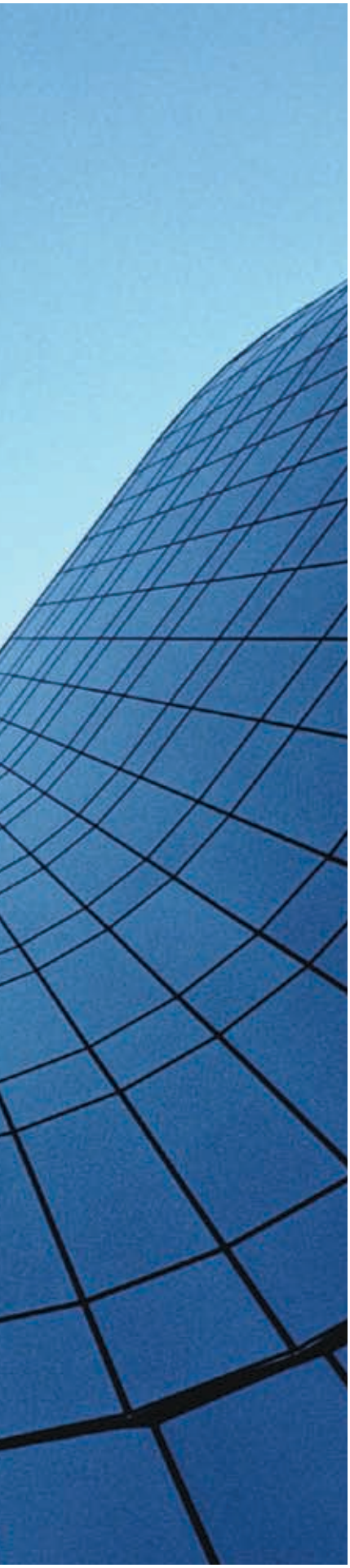
ESCO Partner 1



‘안전시공, 완벽시공, 고객만족’의 슬로건으로 ESCO를 말하는 기업이 있다. 대구에 위치한 (주)동서기연은 소형열병합발전시스템, 바이오매스(우드칩, 바이오탄)보일러, 열회수환기장치, 태양열, 지열, 시스템냉난방기, 통합자동제어시스템, 진공청소시스템 등 기술력을 보유하고 전문 시공 업체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더 싼 가격으로 더 큰 효율’을 위한 에너지 신기술로 에너지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동서기연을 소개한다. 취재 편집실

“ESCO 전문 시공사 (주)동서기연이 건축의 패러다임을 바꾸겠습니다”

2006년 동서기연은 ‘소형 열병합’이라는 신기술로 세상에 주목을 받았다. 이 시설은 아파트, 오피스텔, 병원, 호텔 등에 설치되어 동서기연의 성장 동력으로 자리잡았다. 소형 열병합은 도시가스를 원료로 마이크로 터빈을 돌려 전기와 열을 동시에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이 시설을 설치하면 자체 생산된 전기와 열을 이용할 수 있어 전기요금 및 난방비의 25%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 동서기연은 수도권의 태영, 롯데, 쌍용 등에서 시공하는 아파트에서 전문시공업체로 참여해 수준 높은 ESCO 파트너로 인정받았다.

“당시 유가 급등에 따라 전기료 인상까지 점쳐지면서 에너지 절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덕분에 저희의 신기술인 소형 열병합이 시장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대구도시개발공사의 학정지구 아파트단지를 비롯, (주)태영이 시공하는 대구 수성4가 아파트단지와 범어동의 대구 최고층 주상복합건물 등을 수주했습니다.”

동서기연의 서윤섭 차장은 “우리 회사가 시공하는 열병합 시설은 배기가스가 획기적으로 저감되는 마이크로 터빈 방식으로, 국내 유일”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또 하나의 핵심기술로 동서기연이 개발한 에너지 절약형 ‘DNC 환기 시스템’은 대표적인 열교환 환기 시스템으로 화성산업, 한라주택, SD건설, 한신공영 등 주택건설업체에 제공되고 있다. 전열교환기를 이용해 쾌적한 환기와 에너지 절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웰빙 환기 시스템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고성능의 급기 팬과 배기 팬이 달려 있는 전열교환기를 외부와 접하는 곳에 설치하고, 실내 천장에는 덕트를 배관해 각 방과 거실에 급기와 배기를 하는 시스템이다. 전열교환기는 열교환 소자가 부착돼 냉·난방 에너지를 회수함으로써 신선한 공기를 내부에 유입할 수 있다. 외부 온도가 5℃라

도 유입된 실내공기는 20℃를 유지하고, 외부온도가 35℃라도 실내온도는 27℃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친환경 주거공간이 인기를 모으고 있는 요즘 동서기연은 "초고층 고밀도의 아파트라도 오염원을 확실히 제거할 수 있는 기술"로 틈새시장에 진출했다.

그밖에 ESCO 분야로는 열병합 발전시스템, GHP, 빌딩자동제어공사 등이다. 특히 빌딩자동제어공사는 BAS의 통합과 완벽한 IBS구축으로 빌딩자동화 시스템의 핵심역할을 수행하는 고품질 콘트롤러, 소프트웨어만으로 점등범위를 조절할 수 있는 최첨단 조명시스템, Door access에서 Elevator control, Alarm monitoring, Video imaging, Card printing 및 CCTV까지 통합운영하는 토탈 솔루션을 제공한다.

동서기연의 전문 시공 능력을 수상 이력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7년 5월 대구은행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었다. 대구은행 선정 유망중소기업은 기술개발과 품질혁신으로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회사를 대구은행의 자체 평가를 거쳐 선정하는 것이다. 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대구은행과의 거래시 신용평가상의 가산점을 부여 받으며 우대금리적용 등 금융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업의 신용도로 중요한 ESCO기업으로써는 든든한 이력을 추가한 것이다.

또한 2007년 6월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실시하는 공공입찰시에 신인도 항목에서 가산점을 부여 받을 수 있어, 공공기관에서 실시하는 입찰의 경우 낙찰가능성측면에서 일정부분 유리한 입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내실 있는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일까. 바로 최고의 품질 시공과 최상의 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신기술 연구개발에 주력해온 데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서윤섭 차장은 "저희 (주)동서기연은 인간의 주거공간에 편의와 쾌적함을 제공하고, 산업발전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기계설비산업 분야의 전문 시공업체입니다. '안전시공, 완벽시공, 고객만족'의 슬로건을 걸고 다년간에 걸쳐 성실한 자세로 건실하게 성장해왔습니다. 항상 최고의 품질 시공과 최상의 서비스 구현

을 목표로 신기술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KSA/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을 바탕으로 완벽한 시공과 서비스를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진호 대표님에서 전직원까지 때로는 위로부터, 때로는 아래로부터 끊임없이 기술개발을 하며 부단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현재에 만족하기 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늘 앞서 가는 것처럼 동서기연도 국내 건설문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들이 새롭게 창조하고 싶은 건설 문화는 고효율 에너지 빌딩에 있다. ESCO 역시 에너지절감율 및 탄소배출권시장에 대비한 CO_2 발생량 감소를 최대 목표로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 동서기연의 특화된 분야인 공조분야의 기술력 확보로 소형열병합발전 및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통합 자동제어 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방안인 것이다.
이런 노력들은 물론 이진호 대표 혼자서 한 일은 아니다. 내부의 직원들이 그를 따르는 파트너가 되어 주었으며, 함께 수주하며 기술을 제공하는 파트너 기업과도 돈독한 협력을 해왔다.
동서기연의 파트너십은 삼성물산과의 에피소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처음으로 이진호 대표는 회사의 사활을 건 기술탐방을 위해 2002년 미국 LA전시회를 참가했다. 그 전시회에서 대표는 세계 최대의 마이크로 터빈 생산업체인 미국 캡스톤(Capstone)사의 소형 열병합 시설을 발견했다. 하지만 아쉽게도 삼성물산이 이미 캡스톤사로부터 설비 도입에 관한 전략적 제휴를 끝낸 상태였다. 이진호 대표는 여기에 실망하지 않았다. 삼성물산과의 전략적 제휴에 나서 시공업체 자격을 얻었다. 그 시절 그는 미래를 예견하는 심미안으로 천연가스 시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의 직감에 맞게 소형열병합 사업은 국내 ESCO 사업에 도약을 이끌었다.
동서기연은 2009년 제2의 도약을 맞이했다. 2009년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 일반보급사업 전문기업"으로 선정된 것이다. 일반보급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설치비의 일정부분을 정부에서 무상보조 지원함으로써 국내 개발제품의 상용화를 촉진하고 초기시장창출 및 보급활성화를 유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발된 신·재생에너지기술의 상용화된 일반 보급설비로서 자가용에 한해 설치비의 최대 60% 이내 지원 받게 된다.
"다변화하는 국제사회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개발을 기초로 신재생에너지를 접목하여 다양한 분야의 ESCO사업을 전개하여 세계적인 기업으로 자리잡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서윤섭 차장은 동서기연의 새로운 목표를 말했다. 지역이 실력을 인정한 기업, 노사가 화합하는 중소기업, 동서기연의 내일은 밝아 보인다.